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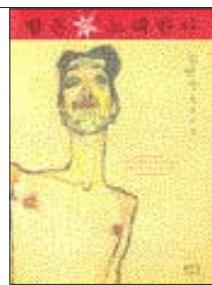
Books

‘북간도 독립군’ 역사에 묻힌 청춘의 노래

1930년대 ‘조선인 마녀사냥’ 민생단 사건 소설화

밤은 노래한다

김연수 지음



이념 대결의 아픈 역사를 지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레드 콜럼븀 스리는 망령에 시달리며 ‘빨갱이’라는 딱지를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민주화 세력을 탄압했다.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의 한국 사회는 디지털의 기마 속에 감춰진 야만이 스타는 물론 불특정 다수를 고품하고 있다.

1930년대 초반 북간도의 항일 유격근거지에서는 민족의 독립과 계급 해방을 꿈꾸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한 꿈을 꾸었던 독립군들이 서로를 죽였던 기막힌 사건이 있었다. 당시 적이 아닌 동지의 손에 죽어나간 혁명가는 무려 500여 명. 이들은 일제의 거듭된 토벌에 치친 나머지 조직 내부에 간첩이 숨어들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일본 스파이로 몰아 죽였던 것이다. 역사의 전면에서 밀려나 있었던 민생단 사건이 소설로 되살아났다.

소설은 김연수(38)가 중국공산당의 ‘조선인 마녀사냥 사건’으로 불리는 민생단 사건을 장편소설 ‘밤은 노래한다’로 꺼냈다. 소설은 민생단 사건 속에서 비극을 경험했던 70여 년 전 청년들의 삶을 통해 인간 내부의 폭력성과 세계의 변화를 꿈꾸는 열망에 대한 의미를 묻는다. 작가는 “어떻게 가장 친했던 사람끼리 서로 죽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고 싶었다”며 소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설은 김해연이 사랑하는 연인 이정희가 죽기 직전 보낸 편지를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김해연은 조선인은 입사하기 훨씬다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서 촉량기사로 일하며 혁명이 뭔지도 몰랐던 평범한 인물. 하지만 연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음악선생인 줄로만 알았던 연인이 혁명 조직의 일원이었음을 알게 된다. 여기에 이정희와 함께 독립투쟁을 했던 박도만, 최도식, 안세훈, 박길룡의 이야기가 얹혀가면서 김해연은 민생단 사건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게 된다.

하나같이 이정희를 사랑했던 그 남자들은 서로에 대한 질투심과 독립을 향한 투쟁방식에 대한 견해차로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에게 차례로 죽임을 당한다.

다른 한쪽에선 김해연이 자신의 사랑을 이용하고 연인을 죽음으로 몰고간 이들을 향해 복수를 다짐한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변절자 최도식을 죽이려 갔던 김해연은 총 앞에서 이정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애편지를 쓰게 된 뜻밖의 사연을 접하게 된다.

소설은 이들을 통해 과파적인 악마성과 자기희생적인 사랑 모두 결국은 우리를 인간에게 하는 인간적 본성임을 보여준다.

저자는 작가의 말을 통해 “지난 5월 말 출판시위 현장에서 전경들 앞에서 춤추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본 뒤 뇌고 과정에서 소설 속 화자 해연이 복수를 포

작가는 “어떻게 가장 친했던 사람끼리 서로 죽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고 싶었다”며 소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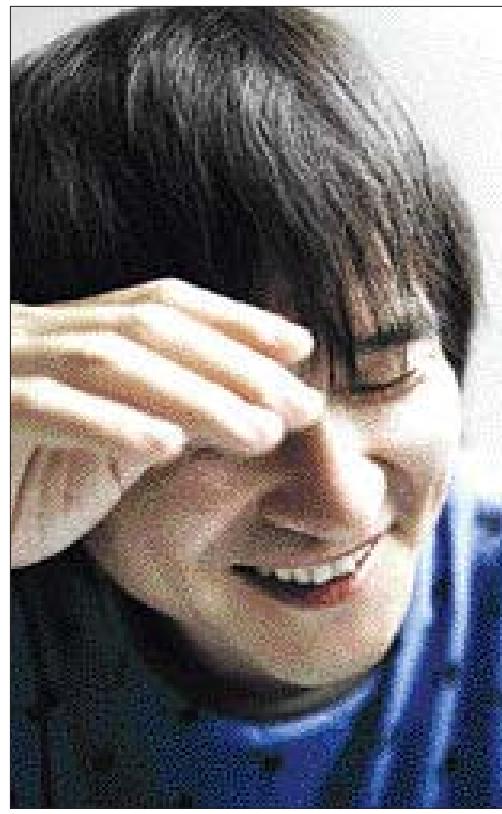
소설은 김해연이 사랑하는 연인 이정희가 죽기 직전 보낸 편지를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김해연은 조선인은 입사하기 훨씬다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서 촉량기사로 일하며 혁명이 뭔지도 몰랐던 평범한 인물. 하지만 연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음악선생인 줄로만 알았던 연인이 혁명 조직의 일원이었음을 알게 된다. 여기에 이정희와 함께 독립투쟁을 했던 박도만, 최도식, 안세훈, 박길룡의 이야기가 얹혀가면서 김해연은 민생단 사건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게 된다.

하나같이 이정희를 사랑했던 그 남자들은 서로에 대한 질투심과 독립을 향한 투쟁방식에 대한 견해차로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에게 차례로 죽임을 당한다.

다른 한쪽에선 김해연이 자신의 사랑을 이용하고 연인을 죽음으로 몰고간 이들을 향해 복수를 다짐한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변절자 최도식을 죽이려 갔던 김해연은 총 앞에서 이정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애편지를 쓰게 된 뜻밖의 사연을 접하게 된다.

소설은 이들을 통해 과파적인 악마성과 자기희생적인 사랑 모두 결국은 우리를 인간에게 하는 인간적 본성임을 보여준다.

저자는 작가의 말을 통해 “지난 5월 말 출판시위 현장에서 전경들 앞에서 춤추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본 뒤 뇌고 과정에서 소설 속 화자 해연이 복수를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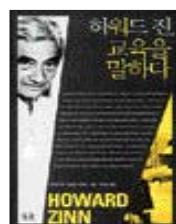


소설가 김연수. <문학과지성사 제공>

기하는 것으로 결말을 바꿨다”며 “그 이유는 어제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학과지성사·1만1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진보학자 하워드 진
민주 교육을 말하다



노암 촘스키와 함께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으로 꼽히는 하워드 진이 생존을 위한 교육이 아닌 공존을 위한 민주 교육을 얘기했다.

하워드 진은 2004년 1월 공자자인 도날드 마세드 보스턴 대교수와 나눴던 대담과 1999년 하버드대에서의 강연, 각종 잡지 인터뷰와 기고문 등 미국 교육 체제를 주제로 한 각종 대담과 강연을 묶어 ‘하워드 진, 교육을 말하다’로 꺼냈다.

극소수의 생존을 위한 미국 교육을 꼬집는 하워드 진은 언론·기업인·학원·재단 등에 의해 생성되고 유지된 오늘날 교육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를 펼치며 교육의 큰 틀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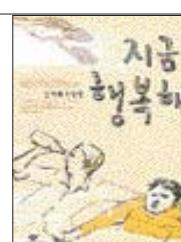
또 교육 문제의 해법은 교육 체제 바깥쪽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민주교육을 통한 공존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궁리·1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주류 아닌 ‘방외인’ 삶은 여행과도 같은 것

지금 행복해

성석제 지음



소설은 등장 인물의 성격을 뜯어 보는 맛에 읽는다고 했던가. 별것 아닌 즐거리를 따라가니 손을 놓으려다가 어디서 본듯한 누군가를 짊은 듯한 인물들을 보면 다시 머리를 들이밀 때가 많다. 때문에 소설가들은 저마다 새로운 성격 창조에 공을 들인다. 소설가 성석제(48)는 특히 이런 인물 만들기에 탁월하다.

그의 열한 번째 소설집 ‘지금 행복해’에서는 술꾼, 도박꾼, 삼류 대학생, 낚시꾼 등 개성 넘치는 인간들의 삶이 펼쳐진다. 이들은 주류가 아닌 방

외자에 가까운 비루한 인생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삶에 집착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애꿎한’ 인물이기도 하다.

작가는 ‘여행’과 ‘중독’이라는 장치를 사용해 이들의 인간성을 극대화시킨다. 특유의 입담과 재치 넘치는 유머감각까지 합해져 소설은 재미있다.

‘여행’·‘설악풍경’·‘피서지에서 생긴 일’ 등 절반 이상의 작품이 여행을 소재로 했다. ‘여행’ 속 만재, 봄수, 영덕이나, ‘피서지에서 생긴 일’의 양우, 인수, 종술은 그런 의미에서 성선택 제1, 놈, 놈, 놈’이다.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처럼 동행 길에서 마주치는 상황에 때로는 영악하게, 때로는 비굴하게 또 때로는 순진하게 반응한다. 친구라면서도 우정 때문에 뭔가를 양보하는 그런 인물들이 턱걸이 아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표제작은 ‘중독’을 통한 인물 창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짧은 시절 도박에 중독돼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마약에 중독돼 교도소까지 다녀온 아버지는 이혼 이후 알코올중독자가 돼 제발로 요양시설로 들어간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쁜 것에만 중독된 것은 아니다. 돌봐주지 못한 아들에게 미안해 하며 친구로 대하는 것이나, 어려운 이웃 도와주기, 작은 일에도 눈물 흘리기 등은 또 다른 중독이다.

낙천적이고 책임감 없는 아버지를, 그야말로 친구 대하듯 하는 아들 또한 흔한 인물상은 아니다. “아버지에게 이혼서류를 갖다주고 어지간하면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는 아들이 인류역사에 몇 명이나 될까. 나는 유별난 아들이 되고 싶지는 않다”(67쪽) 그래도 슬쩍 내뱉은 한마디에 부모의 이혼에서 상처입은 속내를 천연덕스럽게 감출 줄 아는 별난 아들이다. <창비·9천800원>

/김주정 기자 jjnews@kwangju.co.kr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짧은 시절 도박에 중독돼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마약에 중독돼 교도소까지 다녀온 아버지는 이혼 이후 알코올중독자가 돼 제발로 요양시설로 들어간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쁜 것에만 중독된 것은 아니다. 돌봐주지 못한 아들에게 미안해 하며 친구로 대하는 것이나, 어려운 이웃 도와주기, 작은 일에도 눈물 흘리기 등은 또 다른 중독이다.

낙천적이고 책임감 없는 아버지를, 그야말로 친구 대하듯 하는 아들 또한 흔한 인물상은 아니다.

“아버지에게 이혼서류를 갖다주고 어지간하면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는 아들이 인류역사에 몇 명이나 될까. 나는 유별난 아들이 되고 싶지는 않다”(67쪽) 그래도 슬쩍 내뱉은 한마디에 부모의 이혼에서 상처입은 속내를 천연덕스럽게 감출 줄 아는 별난 아들이다. <창비·9천800원>

/김주정 기자 jjnews@kwangju.co.kr

성석제 지음

작가는 저마다 새롭게 만난다.

‘여행’·‘설악풍경’·‘피서지에서 생긴 일’ 등 절반 이상의 작품이 여행을 소재로 했다. ‘여행’ 속 만재, 봄수, 영덕이나, ‘피서지에서 생긴 일’의 양우, 인수, 종술은 그런 의미에서 성선택 제1, 놈, 놈, 놈’이다.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처럼 동행 길에서 마주치는 상황에 때로는 영악하게, 때로는 비굴하게 또 때로는 순진하게 반응한다. 친구라면서도 우정 때문에 뭔가를 양보하는 그런 인물들이 턱걸이 아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표

제작은 ‘중독’을 통한 인물 창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짧은 시절 도박에 중독돼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마약에 중독돼 교도소까

지 다녀온 아버지는 이혼 이후 알코올중독자가

돼 제발로 요양시설로 들어간다. 그러나 아버

지가 나쁜 것에만 중독된 것은 아니다. 돌봐주

지 못한 아들에게 미안해 하며 친구로 대하는

것이나, 어려운 이웃 도와주기, 작은 일에도

눈물 흘리기 등은 또 다른 중독이다.

낙천적이고 책임감 없는 아버지를, 그야말로

친구 대하듯 하는 아들 또한 흔한 인물상은 아니

다.

“아버지에게 이혼서류를 갖다주고 어지간하면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는 아들이 인류역사에 몇

명이나 될까. 나는 유별난 아들이 되고 싶지는 않다”(67쪽) 그래도 슬쩍 내뱉은 한마디에 부모의 이혼에서 상처입은 속내를 천연덕스럽게 감출 줄 아는 별난 아들이다. <창비·9천800원>

/김주정 기자 jjnews@kwangju.co.kr

작가는 저마다 새롭게 만난다.

‘여행’·‘설악풍경’·‘피서지에서 생긴 일’ 등 절반 이상의 작품이 여행을 소재로 했다. ‘여행’ 속 만재, 봄수, 영덕이나, ‘피서지에서 생긴 일’의 양우, 인수, 종술은 그런 의미에서 성선택 제1, 놈, 놈, 놈’이다.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처럼 동행 길에서 마주치는 상황에 때로는 영악하게, 때로는 비굴하게 또 때로는 순진하게 반응한다. 친구라면서도 우정 때문에 뭔가를 양보하는 그런 인물들이 턱걸이 아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표

제작은 ‘중독’을 통한 인물 창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짧은 시절 도박에 중독돼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마약에 중독돼 교도소까

지 다녀온 아버지는 이혼 이후 알코올중독자가

돼 제발로 요양시설로 들어간다. 그러나 아버

지가 나쁜 것에만 중독된 것은 아니다. 돌봐주

지 못한 아들에게 미안해 하며 친구로 대하는

것이나, 어려운 이웃 도와주기, 작은 일에도

눈물 흘리기 등은 또 다른 중독이다.

낙천적이고 책임감 없는 아버지를, 그야말로

친구 대하듯 하는 아들 또한 흔한 인물상은 아니

다.

“아버지에게 이혼서류를 갖다주고 어지간하면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는 아들이 인류역사에 몇

명이나 될까. 나는 유별난 아들이 되고 싶지는 않다”(67쪽) 그래도 슬쩍 내뱉은 한마디에 부모의 이혼에서 상처입은 속내를 천연덕스럽게 감출 줄 아는 별난 아들이다. <창비·9천800원>

/김주정 기자 jjnews@kwangju.co.kr

작가는 저마다 새롭게 만난다.

‘여행’·‘설악풍경’·‘피서지에서 생긴 일’ 등 절반 이상의 작품이 여행을 소재로 했다. ‘여행’ 속 만재, 봄수, 영덕이나, ‘피서지에서 생긴 일’의 양우, 인수, 종술은 그런 의미에서 성선택 제1, 놈, 놈, 놈’이다.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처럼 동행 길에서 마주치는 상황에 때로는 영악하게, 때로는 비굴하게 또 때로는 순진하게 반응한다. 친구라면서도 우정 때문에 뭔가를 양보하는 그런 인물들이 턱걸이 아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표

제작은 ‘중독’을 통한 인물 창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짧은 시절 도박에 중독돼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마약에 중독돼 교도소까

지 다녀온 아버지는 이혼 이후 알코올중독자가

돼 제발로 요양시설로 들어간다. 그러나 아버

지가 나쁜 것에만 중독된 것은 아니다.